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 井 植
인쇄인 金 在 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TEL. 544-0610
544-0611
FAX. 544-0611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 록 일 : 1988년2월19일

會 訓

● 創意	● 奉仕	● 誠實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漁港당면懸案早速해소促求

投資확대 綜合開發 적극推進
漁港法 현실과乖離 改正時急

漁港건설技術研究機關설치토록

施設管理公團도

韓國漁港協會、政府·國會·政黨등에 建議

한국어항협회는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에 앞서 어항건설투자의 대폭 확대 등을 요망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 △어항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어항종합개발의 획기적인 촉진과 신규지정항(23개항)에 대한 지체없는 개발착수 △어항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새로운 어항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현실과의 괴리를 수정 △어항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개발을 촉진하여 해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건의했다.

또한 △경제적·과학적 신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항건설기술연구기관을 설치, 어항시설에 대한 수리학적 연구 등으로 안정성과 기능성이 보장된 어항건설 △고도화·전문화시대에 걸맞게 전문분야의 과감한 민간이양을 추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설계 감리 등은 민간전문기술용역기관에 의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항시설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하여 어항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개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2면에건의서전문게재〉

金是文次長 成耆憲施設局長

▌金是文 次長

▌成耆憲 施設局長

정부는 7월 11일자로 수산청차장에 김시문시설국장을 승진임명하고 후속인사로 국장급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수산청은 어업진흥관에 유중오 수산공무원교육원장을, 시설국장에 성기헌어업진흥관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김시문차장 프로필〉

61년 농림부를 시작으로 관계에 발을 디딘이래 66년 수산청개청과 더불어 수산행정과 함께 해온 수산행정전문가.

성격이 온화하고 매사에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부담없는 대화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수산행정전문가답게 기획관리관 시설국장 어업진흥관등 수산청국장급자리를 두루 거쳤으며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되는 영광을 안았다.

합리적인 사고로 매사에 빈틈이 없다는 평도 있으나 청내 분위기 조화에는 적임자라는 평가.

홍익대법정대를 졸업하고 대만국립중흥대학대학원과정을 수료해 수산계에서는 드물게 중국통으로 통한다.

〈성기헌시설국장 약력〉

△ 1932 년 충남아산생 △1972 년 부산대대학원수료 △1975 년 수산청지도과장 △1976년 국립수산진흥원 서무과장 △1980년 기획예산담당관 △1981년 감사담당관 △1985년 원양개발담당관 △1989 년 수산공무원교육원장 △1991 년 6월 어업진흥관 △1991년7월 시설국장 △1981년 녹조근정훈장.

漁港豫算삭감말아야할까닭

機能갈수록多樣化
漁民제일念願立証

産業간均衡 發展的側面에서도 一方的으로 落後

수산청은 92년도 어항건설부문예산으로 8백57억 3천여만원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예산의 1백49% 수준으로 약 2백82억 3천여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정부가 수산업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균형있는 경제사회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어항부문예산 만큼은 삭감없이 확보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러한 92년도의 예산도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92년부터 오는 2천1년까지 10년간 어항건설부문에 모두 2조 5천6백80억원을 투자하여 4백50㎞의 시설물을 비롯한 5백5개의 어항건설을 완료하겠다는 수산청의 어항개발계획을 놓고 볼 때 이는 말뜻 그대로 최소한의 예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10년간 투자액을 산술평균해 보면 적어도 한 해에 2천5백68억원의 예산은 계상되어야 하며, 백 번 양보해 이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해도 8백56억원 안팎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사회간접자본의 불균형현상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어항·어촌에 대한 낙후성과 열악성의 우려의 단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이다.

경부간에 고속전철이 추진되고, 상업항을 위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설립되며, 영종도를 비롯한 주요도시에 신규공항이 속속 발표되는 동안에도 수산업발전을 위한 어항건설 소식은 어찌된 영문인지 찾아볼 길이 없었음은 아직까지도 산업간 불균형발전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 구석구석에는 천혜의 자원보고인 바다를 3면에 갖고 있다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이 보고를 가꾸고 이용할 줄 모른데서야 후대 자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와중에서도 최근 수산청이 23개 어항을 새로 지정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어항인들로서는 적잖은 위안이 되고 있다. 어쨌거나 황량한 바다에 새로운 터전을 닦고, 세우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까닭이다.

그러나 수산업발전을 위한 어항개발은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같은 단편적인 방식의 수준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어항개발이 아닌 어항의 기본시설과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인 구도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焦點

海洋開發시책과相馳
政府의지實踐力 보여야 할 때
民間投資길도열어야

따라서 앞으로의 어항개발은 수산업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차원에서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어항중심의 어촌종합개발을 우선 순위로 해서 기능과 시설을 골고루 갖춘 그런 형태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수산인에게 신뢰감과 의욕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92년은 우리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다. 사업초년도부터 어항의 정비·개발이 본격 착수되지 못한다면 경제사회발전계획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국민의 성원이 산업간·계층간·지역간의 불만으로 강하게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어항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력을 어항인에게 보여야 할 때이며, 불가분 어항부문예산의 확충에서 그 모습을 보여 주어야지 달리 방법이 없음을 지적해 둔다.

그리고 이같은 어항개발투자에 정부의 여력이 못미침을 감안하여 차제에 민간자본의 어항개발유치를 할 수 있도록 어항법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 다른 산업과 동등하게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어항개발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이해와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요즘이다.

災害예방對策
被害最少化
수산청

수산청은 올해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수산피해 최소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독려반책임자를 초치,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19일 수산청회의실에서 열린 수산피해최소화대책회의에는 수산청 시설국, 생산국과 시·도 독려반책임자인 국립수산진흥원 지도과장 및 9개 수산연구소장이 참석, 91년재해예방추진계획, 재해대비어민행동요령과 피해복구 및 절차에 대해서 집중논의하는등 수산피해를 최소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재해예방을 위해 이번에 새로 편성된 재해예방독려반은 전국해안 34개소에 분포, 각 어촌지도소장 및 수검지소장이 반장이 되며 독려지역은 73개소로 나뉘었다.

이에따라 시·도책임자는 지역별 독려반장을 지휘감독하고, 활동상황을 취합, 수산청에 보고하게 되며, 지역별 독려반장은 항포구별 담당구역을 순회독려하고 산하단체비상근무 및 활동상황을 점검한다. 그리고 73개지역담당자는 담당구역내의수산시설 피해예방활동등 지도독려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3種港 來年에 12곳開發

수산청은 신규로 지정한 23개 1·3종어항중 내년도에 12개항을 개발키로 하고 7억 2천만원을 들여 오는 연말까지 이들 어항에 대한 기본조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외곽시설이 완료된 경남신수항에대한 지질조사를 실시, 이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산청이 기본조사사업을 실시할 12개항은 △강원 수산항 △충남 홍원항, 모항항 △전남 사동항, 여서항, 남도항, 수품항, 시산항 △경남 다대다포항 △경북 오산항, 구산항 △제주 김녕항 등이다.

漁港·어촌一體化돼야 '理想어촌'
어항 建設 投資 확대해야만 實現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 꾸준히 추진해 온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어 한·소간의 국교가 수립되고 지난 1·22 소련과의 어업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우리 수산계의 오랜 숙원인 소련 극동어장진출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업은 200해리 체제의 정착과 공해조업에 대한 규제강화 및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물수입 증가 등 외적압력과 더불어 내적으로는 연근해수산자원의 감소, 연안어장의 오염,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 어업인력의 부족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영양으로서 필수적인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건강의 유지와 식량자급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도이용과 국민의 수산물기호성의 다양화등에 대응하는 획기적 조치가 긴요한 실정입니다.

建議文전문

한편 최근에 있어서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여가선용 향상이 높아짐에 따라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각종 레크레이션과 신선한 수산물을 찾아 어항·어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어 관광개발과 어촌의 어업외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시책도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수산업을 둘러싼 여러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어항을 단순히 생산·유통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중심지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향에서 개발하여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있는 어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룩할 수 있는 어항·어촌을 일체로 한 이상어촌을 건설하여 도·농·어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어항인은 수산업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어항개발투자의 획기적인 확대와 이와 관련한 제반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하오니 모두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一. 어항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어항종합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지정항(23개항)에 대한 지체없는 개발착수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一. 어항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새로운 어항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현실과의 괴리를 수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一. 어항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개발을 촉진하여 해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一. 경제적·과학적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항건설기술연구 기관을 설치, 어항시설에 대한 수리학적 연구 등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된 어항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一. 고도화·전문화시대에 걸맞게 전문분야의 과감한 민간 이양을 추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설계, 감리 등은 민간전문기술용역기관에 의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항시설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하여 어항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당면과제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효율적인 수산업의 실현, 어항을 중심으로 한 정주권형성 및 바다문화의 계승·발전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둘러싼 제반정세는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주변수역의 유효적절한 이용이 요구되는 바 이는 바로 어항을 핵으로 한 새로운 수산업의 거점 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형성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촉진, 그리고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어항중심의 증양식어업 등 재배어업의 적극적인 진흥과 다양화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 기호도충족을 위한 수산물 종합유통가공단지의 설치, 또한 어업근로조건의 열악성과 어업인력난에 대응한 어항의 안정성·기능성·쾌적성 확보 등 질적개선과 국가경제 발달,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른 탈도시 해양레저 인구의 급증에 대응한 관련시설을 겸비한 어항개발 등이 그 어느때보다도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漁港 관련豫算대폭擴大

이와 같이 오늘의 어항은 수산물의 생산과 공급, 어선의 안전수용이라고 하는 종래의 단순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적 기반으로서의 제기능과 시대적 요청인 국민건강과 정서함양 등 수산외적 기능을 통한 어업외 소득증대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여타 주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차원에서 중시,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어항개발예산 요구액 6천2백20억원 규모를 필히 계상하고 그 초년도인 92년부터 연차별 예산을 대폭 확대 배정하여 신규지정항(23개항)에 대한 지체없는 개발착수는 물론 종합적인 어항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어항법은 1969년 제정된 이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보완된 바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항법제정 당시와 현재의 어업여건 및 어항주변정세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는 소형어선에 의한 어선어업이 주였으나 그동안 어선은 대형화, 다질화되는 한편 증양식기술의 발달로 재배어업이란 새로운 어업형태가 등장하였으며 따라서 주변수역의 고도이용이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수산물에 대한 국민기호의 변화로 활어유통이 증가되는 한편 수산물수송도 종래의 철도에서 차량을 이용한 신속성 위주로 변화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친해양성 여가활동의 증가에 따른 어항의 기능다양화 및 수요증대에 대응한 민자유치와 어항투자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어항기술의 고도화·선진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漁港法의早速한改正

이와같이 최근 어항을 둘러싼 제반상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 어항은 종래의 정박항 개념이 아니라 수산업의 거점 어항으로서 또 어촌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으로서의 종합적인 기능을 다할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는 어항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한 현실과의 괴리수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어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어항은 그가 소재하는 위치와 구조물의 특성으로 도로 등 여타 육상 공공시설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수반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어항 전문 기술연구기관이 없어 어항의 합리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어항건설 기술연구기관을 조속히 건설, 방파제 등 어항시설에 대한 파랑, 조석, 표사 등의 수리학적 문제에 대한 계획기술 및 시공기술의 연구와 어항구조물의 기초지반에 대한 각종 역학특성에 관한 연구 등으로 경제적이고도 과학적인 신기술의 개발과 그 실용을 통한 안전성과 기능성 및 경제성이 보장되는 어항건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일찌기 어항기술연구의 긴요성을 인식하고 1979년 수산청 산하에 수산공학연구소를 설치하고 그안에 수산토목학부를 두어 어항·어장에 대한 수리연구와 시설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또 1982년에는 전국지방공공단체와 어업협동조합의 기부금을 재원적 기초로 하는 어항·어촌건설기술연구소(재단법인)를 설립하여 어항 및 어촌환경정비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과 기술적 문제의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기술원의 활용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漁港 관련豫算대폭擴大

어항분야만 보더라도 단위시설 투자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대처와 어항을 둘러싼 주변정세 변화에 부응키 위한 어항기능의 다양화·세분화 및 쾌적성 확보, 그리고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완공항의 적정관리 등이 긴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어항분야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어항공사 설계·감리 등은 민간전문기술 용역기관에 과감하게 의뢰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항시설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하여 어항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漁港 건설技術研究機關설립

경제적이고도 과학적인 신기술의 개발과 그 실용을 통한 안전성과 기능성 및 경제성이 보장되는 어항건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漁港 指定의持續的확대

을 위하여는 양륙항까지 항해하여야 하는 등 필요이상의 시간과 경비를 가중시켜 어업경영을 어렵게 하고, 더욱이 태·폭풍 등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대피가 곤란하여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어민의 생활환경 또한 열악하여 이어현상이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어업 및 생활환경을 조속히 개선하여 어민의 이어를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케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어항의 정비확충이 긴요과제라고 생각되오니 제7차경제사회발전계획 기간중 항간거리를 적어도 2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어항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항·어촌 일체개발 방법으로 그 개발을 촉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漁港 開發體系개선

행정의 추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動靜

尹沃榮수산청장

▲윤옥영수산청장은 7월 20일 제주도어업지도선 취항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 25일에는 국무총리를 수행, 강원도를 순시하고 91국민과의 대화에 참여.

▲김시문수산청차장은 7월 12일 엑스포식량자원관 설치에 관한 협의회에 참석.

▲이방호수협중앙회장은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노태우대통령의 미국·캐나다 국빈방문의 수행단일원으로 미·캐나다를 방문.

▲배환갑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22일 업무협의차 서울출장.

▲최상옥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5일 법무부, KBS, 중앙일보사가 주최하는 제2회보호선도대상본상을 수상.

▲양성후세기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21일 최고경영자대학을 수료.

▲조남욱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12일 한·일의원연맹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

▲고세진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 회장은 7월20일 제주도어업지도선 취항식에 참석.

▲박규언조흥공영주식회사 대표이사는 7월19일 충남일대공사현장에출장.

▲전기설합자회사대한토건사 대표이사는 7월22일 업무협의차 서울출장.

▲송재성주식회사성호 회장은 7월22일 한국어항협회에서 열린 시공업체 간담회에 참석.

▲김생려동화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는 7월22일 한국어항협회에서 열린 시공업체 간담회에 참석.

▲마형렬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부의장에 선임.

취임

▲이희수씨(전 수산청차장)는 7월18일 한국수산회 회장에 취임했다.

▲유간성씨(전 세일종합기술공사 부사장)는 최근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부사장에 취임했다.

승진

▲수산청은 7월1일자로 천인봉씨(연근해과)를 주소련대사관 수산관(과장급)으로 발령했다.

합격

▲박원길씨(수산청 어항과)가 수산청5급승진시험에 합격했다.

기금기탁

▲최재양씨(수산청 시설과장)·금일봉

▲강시환씨(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금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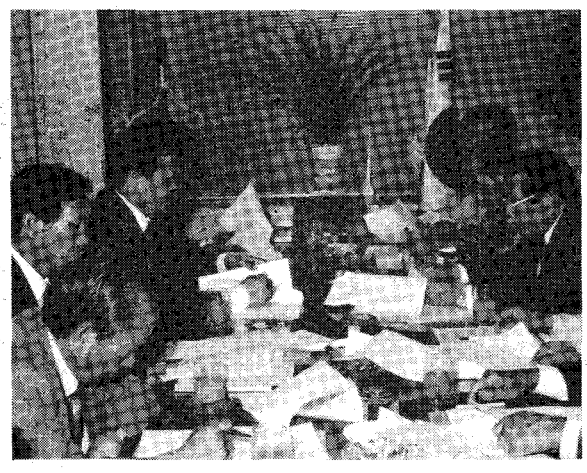
▲김용하씨(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토목부장)·금일봉

〈3면에 계속〉

올해도 '先進漁港시찰'

日·臺灣·홍콩등지 現地서 새技術 익혀

申請마감 9月20日, 11月初登程



한국어항협회는 선진국 및 태풍진로권의 어항실태와 현황을 직접 현지에서 두루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정세에 부응할 어항역할과 개발 및 어항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제4회 해외선진어항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시찰단은 8박 9일에 걸쳐 일본, 대만, 홍콩 등 태풍진로권의 어항실태를 시찰할 예정이다.

◇시찰일시 : 91·11·5 ~ 11·13 (8박 9일)

◇시찰어항 : 〈일본〉 니시우라(西浦)어항, 신나가사끼(新長崎)어항, 에노꾸찌(江口)어항, 이또만(系滿)어항, 기노만(宜野灣)어항, 〈대만〉 기룽항, 〈홍콩〉 애버딘어항

◇참가대상 : 참가희망자(회원 및 어항인 우선)

◇소요경비 : 1백 57만 6천원(1인, 각자 부담)

漁港현안集中 협의 施工社대표등 모여

한국어항협회는 7월 22일 시공회원사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 본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어항예산확보등 당면 어항업계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遠洋전용埠頭공사 落札 三星綜合建設에서 受注

감천항 원양어선전용부두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감천항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원양어업(주)(대표이사 김응수)는 지난 6월 10일 정부로 부터 감천항개발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7월13일 삼성종합건설(주)에 공사를 낙찰함으로써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원양어업개발(주)는 총 3백 2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 오는 94년까지 1차적으로 1천 55ㅌ의 해안에 5백~1천톤급 4척, 5천~1만톤급 4척, 1만톤급이상 1척등 어선 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원양어선 전용부두를 건설할 계획이다.

水産廳人事 課長5名승진 13명轉補발령

수산청은 7월 26일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 과장급 5명 승진, 13명을 전보발령했다.

◇ 과장승진

▲어선과장 이광수 ▲국립수산진흥원서무과장 박희도 ▲수산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최종기 ▲남해어항사무소장 김형인 ▲서해어항사무소장 원강희.

◇ 과장전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대 ▲행정관리담당관 이한기 ▲국제협력담당관 김경용 ▲원양개발담당관 김성채 ▲원양생산과장 박기철 ▲협동조합과장 최명립 ▲어장보전과장 박태조 ▲어항과장 조우연 ▲수산공무원교육원교무과장 김기홍 ▲국립수산진흥원해양과장 한상복 ▲국립수산진흥원환경과장 이삼석 ▲국립수산진흥원연구관 김봉안 ▲여수수산연구소장 서상복.

〈2면에서 계속〉

▲김영환씨(전국수산물홍매업협회 전무이사) : 50만원

■김영환 전무이사

귀국공연

▲인간문화재 김기수씨의 봉산탈춤공연단이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공적 순회공연을 마치고 귀국, 8월하순 무료귀국공연을 할 계획이다. 일정 : 8월28일 분예회관대극장, 31일 하오4시 잠실석촌호 서울놀이 마당.

회원가입

■단체

▲사천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강규봉)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영기)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봉훈)

▲경남정치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신석봉)

▲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응수)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주재욱)

■개인

▲김광휘씨(인천직할시 수산과장)

▲김봉래씨(강원도 동해출장소 수산과장)

▲김현찬씨(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한만부차장)

회비납부

■단체

(분납금)

▲영생건설주식회사(회장 배환갑)

▲신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낙범)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납욱)

▲조흥공영주식회사(대표이사 박규언)

■개인

▲유간성씨(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황덕환씨(신풍건설산업주식회사 현장소장)

▲이홍식씨(중앙대학교 교수)

▲피경만씨(효성중공업주식회사 토목부장)

▲김재극씨(주식회사 문원사 대표이사)

내방인사

▲유간성씨(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차상희씨(한국수산회 부회장)

▲이상철씨(전 대성특수제지 대표이사)

▲김갑부씨(수산청 어정국장)

▲김영환씨(전국수산물홍매업협회 전무이사)

▲박규언씨(조흥공영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희수씨(조흥공영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전기섭씨(합자회사 대한토건사 대표이사)

▲강국희씨(합자회사대한토건사 상무이사)

▲박성태씨(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일제씨(주식회사범신기획 회장)

▲황권주씨(주식회사라이프양행 회장)

▲정태승씨(동대문구청 재무국장)

▲박희도씨(수산청어정과장)

▲장경남씨(덕우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장경득씨(뉴질랜드교민)

▲박석하씨(수우회 부회장)

▲권오활씨(수우회 부회장)

▲박남태씨(덕창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원씨(동아상호신용금고 회장)

▲피경만씨(효성중공업주식회사 토목부장)

▲이종만씨(조흥공영주식회사 회장)

▲천인봉씨(수산청 주소련수산관)

▲배환갑씨(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

▲송재성씨(주식회사성호회장)

▲김생려씨(동화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학영씨(신풍건설산업주식회사 전무이사)

▲민병렬씨(대성국토개발주식회사 상무이사)

▲송근호씨(남진건설주식회사 이사)

▲박영균씨(남화토건주식회사 상무이사)

알림

漁港會館 建立基金을 募金합니다

한국어항협회는 회원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 옹호하는 한편 협회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관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관건립을 위한 재원은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우선 회원들의 정성부터 기금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어항협회가 회관건립 기금을 모금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께서는 회관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금을 기탁해 주셨고, 특히 본회 발행기관지인 「어항」지와 「어항소식」지에 심혈을 기울여 글을 써 주신 분들께서는 원고료마저도 선뜻 쾌척하시는 등 실로 본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감루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회관건립의 반석이라할 이 갸륵한 「정성」을 우선 기금으로 모금키로 했으며, 그 깊은 뜻과 큰 정성이 소담하신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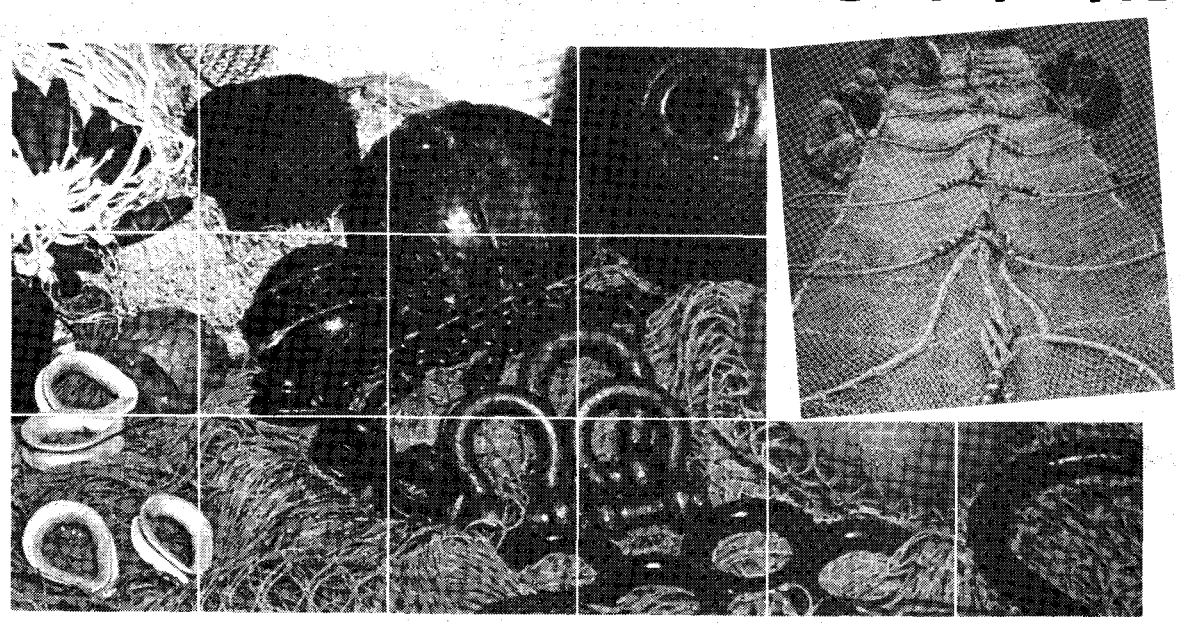
會員權益옹호 基盤다지고자

韓國漁港協會

■ 수협논현동지점 039-01-2553

■ 주택은행언주로지점 482601-87-002039

수산업발전과 어민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社團法人 **大韓漁網工業協会**

理事長 梁映奎

서울市江南區三成洞 159-1 (貿易會館 1906號)
TEL. (02) 551-1958~60 FAX. (02) 551-1959
釜山事務所 : 釜山市中區中央洞 6街 72 (東邦 B/D 504)
TEL. (051) 464-6422 FAX. (051) 463-5268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26〕

臨港道路

5. 배후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주요 임항도로

가. 차선수의 결정

방향별 교통량이 추정되면 그 교통량을 근거로 하여 차선수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차선수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text{차선수} = \frac{\text{방향별 교통량(대/h)}}{1/2 \times \text{교통용량(대/h)}} \quad \cdots\cdots ⑤(2\text{차선})$$

$$\text{차선수} = \frac{\text{방향별 교통량(대/h)}}{\text{교통용량(대/h)}} \quad \cdots\cdots ⑥(\text{다차선})$$

차선수는 먼저 ⑤식으로 산정하고, 1.0이상이면 다음으로 ⑥을 가지고 차선수를 검토한다. 다만 차선수는 홀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또 교통량에 있어서는 각 어항의 지형, 설계속도, 대형차량 혼입률 등에 의하여 달라지므로 어항마다 도로구조령을 참고로 하여 산정한다. 다음 도표에서 그 산정예를 든다.

(주) 어항임항도로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어획물의 양륙시, 시장개설시, 그 수송기관과의 접속, 소비시장에의 도착시간 등 모두 시간에 제약되어 일정기간내에 피크상태가 됨에 따라 교통의 흐름이 한 방향에 편중되는 등 임항도로의 차선수 산정에 있어서는 도로구조령에서 말하는 교통용량을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유효한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배후의 간선도로와 어항을 연결하는 주요 임항도로 혹은 어항관련도로는 그 주행상태가 일반도로와 유사한 면도 있어 편의상 이것을 참고하기로 한다.

나. 차선의 폭

차선의 폭은 충분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선이 너무 넓으면 정연한 교통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 차선의 폭이 너무 넓어도 좋지 않다. 차선의 폭은 설계속도, 도로의 규격, 차량의 종류에 의하여 3m 또는 3.25m, 경우에 따라서는 2.75m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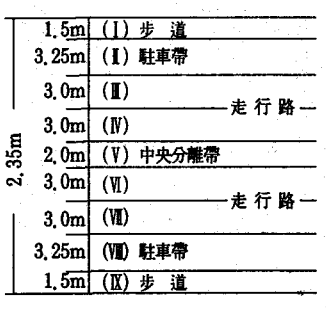
다. 필요도로 폭

전 '가'항에 의하여 구해진 차선수는 어디까지나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그외 어항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각종 어항시설의 이용을 위한 주차장, 중앙 분리대, 보도 등을 필요에 따라 고려하여 도로폭을 결정한다. 다음 도표는 주요 임항도로의 폭 구성의 일례이다.

道路의 修正交通容量

漁港名	漁港種別	本土落島	種別 級別	地形	設計速度(km/h)	車線幅(m)	側方余裕 左側	側方余裕 右側	大型車 混入率(%)	大型車 乘用車換算係數	補正率 車線幅	補正率 側方余裕	補正率 大型車	補正率 沿道條件	補正率 合計
A	特3	本土	第4種 1級	平地	60	3.25	2.5	2.5	2.0	1.75	0.94	1.00	0.86	0.70	0.56
										2.05	0.94	1.00	0.82	0.70	0.54
B	3	落島	第3種 3級	平地	40	3.25	0.5	0.5	10	1.8	0.94	0.90	0.93	0.90	0.71
										2.1	0.94	0.75	0.90	0.90	0.57

漁港名	基本交通容量(台/時)	可能交通容量(台/時)	計劃水準	計劃水準補正	設計交通容量(台/時)	補正率 重方向의 비율(%)	補正率 交差点補正率(%)	修正後의 交通容量(台/時)	備考
A	2,500	1,400	2	0.90	1,260	60	80	603	多車線
	2,500	1,350	2	0.85	1,147	-	60	688	二車線
B	2,500	1,775	2	0.85	1,509	60	90	814	多車線
	2,500	1,425	2	0.85	1,211	-	70	847	二車線



主要臨港道路의 幅構成의 例

정신 맑게 하고 기억력 높이는

소·라

건·강·하·게·삽·시·다

소라의 껍질과 살고기를 함께 삶은 국물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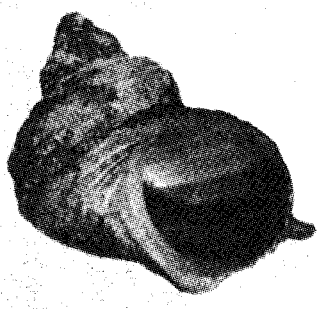
소라는 고동과에 속한 권패류의 일종으로서 한방명으로는 해라(海螺)、해영 향갑(香甲)、유라(流螺)、가저라(假猪螺) 등으로 불리어진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 소라는 국민학교 동시집 속에 자주 등장하여 동심을 사로잡는 가장 대표적 소재로서 문예인들이 사랑하였던 바닷동물이었고 음악 기타 모든 전공분야에 까지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정서교육에 큰 몫을 차지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바닷동물이다。

소라 껍데기로 만든 악기를 나각(螺角) 또는 법라(法螺)라고 부르는데 이 나각이나 법라는 고려말기부터 이조말기까지 군악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단추、자기、바둑돌 같은 것을 만드는 등 그 용도가 많았으며 살고기는 식용、약용으로 많이 이용하여 왔다。

소라의 살고기에는 발육기 어린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아르기닌」、「히스티딘」、「자아신」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발육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좋은 약품이다。 그 외에도 지방、단백질、당질、회분、인、철분、비타민 A·B 등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영양식품 이기도 하다。

한방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소라의 국물을 대병후(大病後)의 회복기 환자나 노인에게 영양의 공급 내지 입맛을 되찾게 하여 준다고 기록해 두었고 살고기는 오래된 목통(目痛)을 다스리는데 그것은 소라의 살고기로 즙(汁)을 내고 그 즙으로 눈을 씻는다고 소개해 주고있다。 그리고 그 껍질을 주창、개선(음)같은 피부화농성 질환에 사용하며 뱀이나 벌 등에 쏘인 해독에 좋다고 하였다。



특히 심장병에는 미역과 함께 삶아 그 국을 장복하면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였다。

소라의 껍질과 살고기를 함께 삶은 국물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하는 가장 좋은 약이므로 고등학교 3년생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수험생에게 여러가지 형태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겠으나 그 보다는 몇십배의 효능을 가진 소라삶은 물을 음료수 대신 간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일석삼조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새秩序·새生活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할 때

민주화·산업화 소용돌이속에서 마비되고상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 등 중진국에 대해 거센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협상이기 보다는 강요이자, 일방적 통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우리 경제의 순탄한 항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고 비웃기까지 하는 외국의 언론들을 코웃음으로 받아넘길 일 만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채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정치인들과 학자들 사이에 '외채망국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흑자경제로 돌아서자 마자 내가 번돈 내가 쓰겠다는 무분별한 해외나들이와 과소비가 모처럼 맞은 '3저(低) 시대'의 호황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다.

'3저 시대'가 가고 다시 '3고(高) 시대'가 닥쳐왔는데도 호화·사치풍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북경 아시안게임 때만 해도 그렇다. '염불보다 잿밥에 더 마음이 있다'는 속담처럼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일은 고사하고 문화 유적 순례나 동포들을 위로하는 일도 제쳐둔채 한약방 싹슬이에 나섰다는 소식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었다.

집없고 땅없는 이웃들은 생각하지 않고 집과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집값 땅값을 부채질하는 사람들, 누가 돈벌지 말랬느냐고 큰 소리 이적 생각을 못한다'지만 우리는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참다운 '나'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정서를 심어가는 일은 '남'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다. 거리의 불량 청소년들은 남의 집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 딸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학생들이 스승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부모에게 패륜을 하고 직장상사를 끌고 다니는 비교육적, 반윤리적 행태가 빚어지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학교에서는 인간교육을 하고, 가정에서는 효와 사랑이 바탕이 되며 직장에서는 인화단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라는 커다란 공동체는 하나의 기계와 같아서 부분부분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무질서와 방종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비되고 상실되었던 '나'를 찾는 일이 곧 '새질서 새생활'을 실천하는 길이다.

공동체, 부분기능 정상화돼야 정상가동

를 치며 사치와 허영에 들떠 이웃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도덕적 규범을 파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생활상들이 자라는 젊은 세대와 청소년들의 눈에 비쳐질 때 사회는 어둡고 혼탁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개구리 올챙

♣새秩序·새生活